

# 영암 김민재, 설날씨름대회 백두급 우승...정상 탈환 시동

결승서 김동현 3-0 제압...대회 2연패·개인 통산 18번째 꽃가마  
5승 무패 승점 100점으로 단독 1위...“목표는 20회 장사 타이틀”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가 ‘위더스제약 2026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백두급(140kg 이하)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재는 지난 18일 충남 태안군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백두장사 결정전(5판 3선승제)에서 김동현(용인특례시청)을 3-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그는 지난 2025시즌 설날장사씨름대회·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각각 백두장사, 천하장사씨름대회에서 천하장사에 오르며 국내 최강자의 위용을 뽐냈다.

올 시즌에도 설날대회를 제패하며 2연패를 달성하며 앞으로의 활약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우승으로 개인 통산 18번째(백두장사 15회·천하장사 3회) 장사타이틀도 획득했다.

이번 대회 8강에서 정창조(제주특별자치도청)의 부상 기권으로 4강에 진출한 김민재는 서남근(수원특례시청)을 2-0으로 꺾고 백두장사 결정전에 진출했다.

김동현과 만난 결정전에서는 밀어치기를 두 번 연속 성공시키며 기선을 제압했다.

2-0으로 앞선 김민재는 세 번째 판 역시 밀어치

기로 상대를 쓰러뜨리고 우승을 확정했다.

김민재는 “동계 훈련이 힘들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쁘다”며 “올해 목표는 백두장사 20회 타이틀을 얻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우승희 영암군수님, 이광준 대표님, 김한모 회장님, 신창석 회장님, 김기태 감독님, 윤정수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백두급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김민재는 데뷔 때부터 과물 같은 실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22년 6월 울산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민재는 주먹기 들배지기를 앞세워 민속씨름리그 데뷔전이었던 단오장사대회에서 곧바로 백두장사 타이틀을 따냈다.

이어 11월 참가한 천하장사 씨름대축제에서는 천하장사까지 거머쥐며 씨름판을 들썩이게 했다.

1985년 이만기(당시 경남대 4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 나온 대학생 천하장사로 이름을 올렸다.

2023년에는 민속씨름 9개 대회에 참가해 6개 대회(설날대회·문경장사대회·보은대회·단오대회·제천의병장사대회·안산김홍도대회)에서 우승했다.

시즌 전체 1위는 단연 김민재(26승 2패·438점)

가 차지했다.

2024년 역시 랭킹에서 29승 4패로 580점을 쌓은 김민재는 2위 태안군청씨름단 최성민(340점)과 격차를 크게 벌려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승점에 따른 시즌 랭킹 도입 이후 백두급 시즌 랭킹 1위는 매번 바뀌는 춘추전국시대였지만, 김민재가 처음으로 2년 연속 백두급을 제패했다.

2025년에는 3연속 백두급 정상을 노렸으나 아쉽게 실패했다.

3개 대회에서 장사를 차지하며 물오른 경기력을 뽐냈던 김민재는 10월까지 15승 4패 승점 250점을 기록, 2위 홍지훈(울주군청해뜨미씨름단·16승 6패 승점 240점)과 10점차를 유지했다.

하지만 최성민(태안군청씨름단)이 막판 스퍼트로 승점 300점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1위 자리를 내줬다.

올해는 김민재가 시즌 첫 대회부터 압도적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 정상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19일 현재 5승 무패로 승점 100점을 기록 중이다. 2위 김동현(4승 1패 승점 70), 3승 1패 승점 50점으로 공동 3위인 김민호(영월군청씨름단)·서남근(수원특례시청)과도 차이를 크게 벌렸다.

‘씨름 괴물’ 김민재가 올 시즌 백두급 모래판을 뜨겁게 달구며 대권 탈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지난 18일 열린 ‘위더스제약 2026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140kg이하)에 등극한 김민재가 활스트로피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씨름협회

26

2026 밀라노·코르티나패럴림픽 동계 올림픽



지난 12일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패럴림픽 동계 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최가은이 마지막 3차 시기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최가은의 3차 시기 두 번째 점프를 촬영한 사진 6장을 레이더 합성해서 만들었다. 연합뉴스

## “에어매트만 있다면...” 역대 최고 성적 스노보드의 숙원

한국 스키·스노보드가 동계 올림픽 출전 66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두며 2026 밀라노·코르티나패럴림픽 대회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리비노에서 끝난 이번 대회 스노보드 종목에서만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하나씩 획득했다.

1960년 스쿼밸리 대회부터 올림픽 무대에서 경쟁해 온 한국 스키·스노보드의 역대 최고 성과다.

특히 스노보드가 메달 3개를 모두 책임지며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김상겸(하이원)이 은메달을 획득한 것을 시작으로 유승은(성북고)이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그리고 최가은(세화여고)이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전까진 안방에서 열린 2018년 평창 대회 때 이상호(백석원가드)의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이 한국 스키·스노보드의 유일한 메달이었다가 8년이 흘러 이탈리아 알프스 산악 지역인 리비노에서 잠재력이 터졌다.

속도를 겨루는 알파인 종목(평행대회전)뿐만 아니라 공중 동작 등 연기 점수로 성적을 가리는 프리스타일 계열(하프파이프·빅에어)에서도 메달을 수확해 영역을 확장하는 성과를 남겼다.

최가은과 유승은 모두 2008년생 고교생이며, 비슷한 연령대에 국제 무대에서 겨룰 만한 재능

국내 사계절 훈련 에어매트 없어

훈련량 30% 차지...매년 국외로

“비공개 기술 전략 측면 필요도”

있는 선수들이 여럿 있어서 미래 전망도 밝다.

이런 ‘잔치집’ 분위기에서 현장에서 “국내 환경이 조금만 더 갖춰지면 ‘리비노의 기적’을 이어가는 것 이상의 결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국내 스키·스노보드 환경이 그 전보다는 나아진 게 사실이지만, 사계절 국내에서 훈련하며 기술을 갈고닦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에어매트’다.

한국 실상 종목 최초의 금메달리스트 최가은은 대회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여름에도 훈련할 수 있는 에어매트 시설이 있는데, 한국에는 없어서(이제)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 한국 스노보드가 최초로 출전할 때부터 선수들을 지도해 오며 올림픽 금메달을 일군 김수철 감독도 “에어매트가 정말 간절하다”고 호소했다.

에어매트는 눈이 없는 상태에서도 점프와 회전 등 공중 동작을 연마할 수 있는 시설로, 고난

도 공중 동작을 펼치는 종목의 비시즌 훈련에 필수 요소로 꼽힌다.

골격을 이루는 구조물과 인조 슬로프, 부상 방지를 위한 매트 등으로 구성되는 이 시설은 미국을 비롯해 다양한 나라에 갖춰져 있다.

아시아에서도 일본에 10곳 이상 있으며 중국도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2010년대부터 에어매트를 구축한 것으로 전해지나 우리나라엔 전무하다.

따라서 연간 훈련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라는 에어매트를 활용해 훈련하고자 우리나라 프리스타일 계열 종목 선수들은 매년 장기간 국외로 나간다.

적잖은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해마다 공중 기술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외 시설에서 훈련할 경우 새로운 기술을 준비하더라도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여기에 올림픽을 앞두고는 자국 선수 외에는 개방이 제한적이라 마음껏 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수철 감독은 “우리나라에 전용 훈련장이 있다면 비공개 훈련이 가능해져 선수 보호와 전략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끝내루 선수들의 기량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이 시설이 국내에 생긴다면 연간 5억원 안팎의 원정 훈련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프파이프를 중심으로 스키·스노보드가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포함한 큰 대회에서 성과를 낼 때마다 국내 에어매트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긴 했으나 큰 진전이 없었던 건 비용과 부지 확보 등의 걸림돌 때문이다.

설치에만 수십억원이 들고 유지와 보수, 관리에도 비용을 지속해 투입해야 한다.

정해진 규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장 수준에 버금가는 슬로프와 점프대 등이 포함돼야 해 부지도 넓어야 한다.

스키·스노보드계에서는 ‘미래 국위선양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국가 예산으로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회 관계자는 “국외에서 훈련하는 것보다는 경제적·효율적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부지 때문이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해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예산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지를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평창이든 어디든 부지 확보가 결국 관건일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에어매트는 스노보드와 스키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훈련 시스템이다. 실상 종목 전체 경쟁력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환경이 곧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며, 국내 환경이 조금만 더 만들어지면 충분히 결과를 더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KIA, 오키나와 연습경기 생중계

내달 1일부터 플랫폼 ‘SOOP’ 송출

KIA타이거즈가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를 생중계한다.

KIA는 오는 3월 1일 한화와의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2일 삼성라이온즈, 5일 KT위즈, 6일 LG트윈스 등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치러지는 연습경기 4경기를 생중계할 계획이다.

연습경기는 모두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SOOP’을 통해 경기 개시 시간인 오후 1시부터 송출된다. 또한 경기 전체 영상과 하이라이트 영상 등을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가티비’와 SOOP 방송국에 업로드 할 예정이다.

이번 중계는 KIA타이거즈 출신인 KBSN 장성호 해설위원이 4경기 모두 해설을 맡아 전문성 있고 깊이 있는 중계로 팬들에게 또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는 24일 오후 1시 열리는 WBC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의 연습경기도 가티비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KIA 관계자는 “비시즌 동안 갈고 닦은 선수들의 기량을 팬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연습경기 생중계를 준비했다”며 “중계 화면을 통해 올 시즌 우승을 향한 선수들의 뜨거운 열기가 팬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 MLB가 꼽은 WBC 키 플레이어

한국대표팀은 ‘kt 안현민’ 지목

프로야구 kt위즈 안현민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꼽은 3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한국 대표팀의 키 플레이어로 지목됐다.

MLB는 19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WBC에 출전하는 20개 나라의 키 플레이어 한 명씩을 선정했다.

MLB닷컴은 “한국에는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김해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등 현역 메이저리거와 사이영상 후보에도 올랐던 류현진(한화 이글스) 등이 있다”며 “안현민은 커다란 체격이 인상적인 선수로 마이크 트라우트(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비교되며 ‘근육맨’(Muscle Man)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제 만 22세인 안현민은 지난 시즌 KBO 리그에서 우익수를 보며 홈런 22개, 타율 0.334, 출루율 0.448, 장타율 0.570의 성적을 냈다”고 덧붙였다.

지난 시즌 KBO리그 신인왕에 오른 안현민은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대표팀과 평가전 두 번째 경기에서 홈런 1개와 볼넷 3개를 기록하며 ‘국재용’ 기량을 입증했다.

연합뉴스